

개 회 사

(제303회 임시회)

2022. 8 . 17.(수) 10:00 / 의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재확산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 생존자원인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물을 이용한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끌어 들이면서 지역을 활력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천에서는 물부족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방문객도 자유롭게 맞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상존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병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민심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식수댐 건설이나 광역상수도 공급 등 도서지역 물부족 해결 대책을 군의회와 군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군의회에서도 정부에 대해 도서지역 물부족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함께 사는 주민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식수댐 건설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의결과 조직 개편안에 대한 승인 및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목소리 높은 쪽으로 편중되거나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결된 예산은 지역 활력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군 조직은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민선8기 군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개편된 행정조직에 배치되는 공직구성원들이 사명감에 의한 자증심을 갖고 저마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303회 임시회가 어느 회기보다 생산적인 운영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과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